한방(韓方) 치유기적!?

(막5:21~34)

21.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22.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23.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24.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25.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26.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27.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29.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한방(韓方) 치유기적!?>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어느 한의사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 한의사 선생님께서 대형교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자기가 돕겠다는 겁니다.
자기 말만 들으면 오래지 않아 대형교회의 목사가 될 수 있다,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만병을 고칠 수 있는 기적의 힘을 자기가 행사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어! 대단한 거지요?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그래 어떡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아주 쉬워요.
손을 한 20~30분 들고 있으면 됩니다, 손을 축도할 때처럼 20~30분 이렇게 들고 있으면.
그 사람 얘기는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에 대해서 아는 분이 더라고요.
목사님이 축도할 때 너무 짧게 한다는 거예요, 축도를 길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 축도하듯이 손을 오랫동안 들고 있어서 한 20~30분 지나면, 손의 이 피가 다 아래로 몰려 내려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피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핏기가 하나도 없는 손으로 이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병이 다 치유가 되는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제가 '어째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혈이 빠진 곳에 우주의 운행되고 있는 기가 통하여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어! 말이 멋있어요.
혈이 빠지면 기가 찬다! 기가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액체가 빠지면서 기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주의 생성을 주관하고 운행하고 있는 이 기가, 피가 다 빠진 그곳에 들어오게 될 때 그 우주를 운행하는 기운에 의해서 그 손으로 안수를 할 때마다, 접촉이 일어날 때마다 모든 병이 다 고쳐진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나를 진맥하고 있냐? 그냥 손을 20~30분 들고 있다가 나를 안수해서 내가 아는 병이든 모르는 병이든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다 고쳐라 진맥 받을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둘이서 웃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마음은 도둑놈 심보고 강도 심보고 온갖 악행을 다 행하고 있는데 손 들고 있어서 핏기가 다 가라앉았다고 우주의 운행하고 있는 기가 통해서, 그 손으로 안수하면 만병이 통치가 되겠습니까? 만병이 치유가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참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피가 끓는다' 피가 끓는다는 말이 뭡니까? 정렬이 넘친다, 인간적인 의욕이 왕성하다, 또 젊어서 이 육체적인 원기가 왕성할 때에 피가 끓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감정이 복받쳐 오를 때 화가 나거나 이럴 때 '피가 끓는다' 이런 얘길 합니다.
인간적인 어떤 상태를 말할 때, 인간적인 상태가 발동될 때 피가 끓는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피가 다~ 없어지고 나면, 뭔가 신비한 기운이 들어올 것 같지도 않습니까?

십자가를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주님께서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에 찔리시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고 얘기합니다.
물과 피를 다~ 흘리신 뒤에 하늘아버지의 기운이 내려오면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든지 비유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비유적 의미에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나은 사건을 이해하면 마가의 의도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자! 오늘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나음을 입게 되는 이 이야기의 특징은, 이 여인이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 주세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인으로서 부끄러운 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또 이 여인은 누구와도 접촉을 하면 안 되게 율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그를 고치러 갈 때 무리가 에워싸며 밀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접촉하고 있는 가운데 끼어 있는데, 그 여인이 혈루병이라는 걸 알게 되면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이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도 못하고, 몰래 그 군중들 틈에 끼여서 밀리고 밀치면서 예수님께 와서 옷자락에다가 손을 대게 됩니다.

이때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능력을 발휘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대자마자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빠져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의도에 상관없이 능력이 빠져 나오게 되면서, 이 여인의 혈루병이 고쳐지게 됩니다.

이야기가 참 재미있어요.
본문에서 얘기 하듯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에워싸고 지금 밀치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댔냐고 물어보시는 질문이 타당합니까? 다 댔죠, 다!, 다~ 예수님께 손을 댔지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접촉을 했는데, 왜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 나가지 않고 혈루병 여인에게만 빠져 나갔을까요.
'믿음의 딸아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 이 여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여자의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 옷에 손을 대면 나을 것이다! 그래서 내 병이 고쳐질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까?
이걸 문자 그대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받아들이면 참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께 오면 병을 고칠 거라고 생각해서 몰려온 것입니다.
많은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해도 처지가 다른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께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도, 그 생각이 나오게 된 그 사람의 형편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백만 원 헌금하는 거하고, 전 재산이 백만 원인데 백만 원 헌금하는 거 하고, 똑같은 백만 원이라도 다른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께 나가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믿어도, 그 믿음이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떤 상태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에 따라서 믿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럼 이 여인의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왜 이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 나갔습니까? 그 많은 접촉한 사람 다 제쳐두고.
피가 손에서 다~ 빠져나가면, 우주에 운행되고 있는 기가 손으로 들어온다는 그 한의사의 우

스개처럼,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핏기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나 그 우스개처럼, 이 여인에게서는 빠져 나간 것이 있습니다.
피가 손에서 빠져 나가듯이 빠져 나간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삶이 빠져 나갔습니다.
삶의 내용이 하나도 없는 여자입니다, 삶의 내용이 다~ 피가 빠져나가듯이 빠져 나간 상태입니다.

왜 삶의 내용이 빠져 나갔습니까?
말씀 드린 대로 혈루병!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하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혈을 하고 있는 여인에게는 율법이 정한 바, 누구를 접촉해도 안 됩니다.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으면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유대사회에서 모든 공식예배의 참석이 금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진다는 얘깁니다.
유대사회의 일원으로서 생활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부정해 진다는 것은.
그러므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일주일이 지나거나 삼일이 지나거나 정결예식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12년 동안을 혈루병을 앓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하혈하는 동안에 그 누구와도 만날 수가 없어요.
요즘 같으면 전화로라도 관계를 맺을 텐데, email 을 써서라도 관계를 맺고 의사소통을 할 텐데, 그 옛날에는 한 공간에 공존할 수가 없고,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정해진 공간에서 정해진 물건들을 혼자 쓰면서 살아야 되요, 그 여자가 만진 물건들을 다른 사람이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유대사회에서 부정해져서 완전히 유대사회 일원으로 활동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 여자와는 접촉도, 관계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같은 공간에서 살 수 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사람으로서 여인으로서의 삶이 없는 거예요.
손을 20~30분 들고 있을 때 핏기가 싹~ 빠져 나가듯이, 이 여인에게서는 삶의 내용이 싹~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요, 무(無)에요, 삶의 내용이 무(無) 제로(0)입니다.
바로 이 상태에서 누구도 접촉하면 안 된다고 하는 율법을 어기고, 이 여자가 예수님을 접촉하는데, 여인에게 있어서 의도적인 접촉으로는 예수님이 첫 번째 접촉이 됩니다.
첫 번째 관계가 됩니다.
아~무런 삶의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접촉의 대상이 되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하늘의 능력과 기운이 빠져나가 이 여인에게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의도적으로 인준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그 여자에게 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여자에게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기운이 빠져 들어갑니다.

아! 신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신비한 거예요.
왜 그래요?
삶의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삶의 내용이 완전히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접촉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나와서 고쳐달라고 얘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라 다니며 접촉을 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빠져 나가질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껏해야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능력을 발휘하셔야만 합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 마음속에 삶의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배우자의 문제, 부모의 문제, 자식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회사 일, 사업 일, 입시 일, 애인과의 관계 이런 모~든 삶의 내용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집니다.
능력이 빠져 들어가질 못한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을 구해주시려고 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불쌍히 여겨서 구해주셔야만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그냥 빠져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창세기 1장 1절과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 하시니라' 해 놓고 '땅이 흑암 위에 있고 공허하고 혼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 하신다'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 하신다'
태초에 무(無)! 아무것도 없는 상태.
존재도 없고 삶도 없는 그 태초에 무(無) 위에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게 원초적인 제로(0) 원(1)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하시니라' 창조하시기 위해 몸서리치며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무(無)의 상태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무(無)의 상태를 보면, 존재도 삶도 없는 무(無)의 상태를 보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곳에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 들어가십니다.
무(無)를 무(無)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이 아무것도 내용이 없었습니다.
혈루병 때문에 그 누구와 만날 수도 접촉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삶의 내용이 없었을 때,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지자마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로 들어갔던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삶의 내용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접촉했어도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흘러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핏기가 빠져야 기가 들어온다는 그 말처럼, 핏기가 하나도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가 가득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기운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지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놓여 진 상황이 어떻다, 이거 상관없습니다.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처럼, 이 혈루병 여인의 삶처럼 엉망진창이 되었다, 상관없습니다.
그 상황을 붙잡고 씨름하며 예수님께 나오지 마시고, 그 상황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그 상황을 비우세요.
마음에 차 있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다 버리세요.
어떻게 버려요?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 혈루병 여인처럼 삶의 내용들을 마음에서 다~ 빼냅니다.

난 죽은 자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에게 자식문제가 웬 말이며, 아내 때문에 기분 나쁘다는 게 웬 말이며 사업걱정이 웬 말이냐? 죽은 자인데, 죽은 자인데…

그래서 내가 씨름 하려 하지 말고, 내 능력을 개발하려 하지 말고, 나에게 스펙을 늘리려고 노력할 것 없이, 먼저 내 마음에서부터 삶의 내용을 다~ 빼내는 겁니다.
핏기가 빠지듯이 다~ 빼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접촉의 대상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게끔 하시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첫 번째 대상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하늘의 기운, 아~무 것도 없는 내 마음에 그 무(無)에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못하고 능력으로 기운으로 뜻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 상황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같은 상황을 다~ 창조적 질서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여자는 혈루병 때문에 만지지 못했어요.
근데 우린 죄 때문에 만지면 안돼요.
우리 죄 때문에 자식을 만지면 자식이 부정해져요.
내가 만지는 만큼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집니다.
내 사업을 내가 손대고 내가 주무르고 있는 동안에 사업이 망합니다, 내 죄 때문에.

신명기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으므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환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할 것이며…'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으므로' 죄라는 말이에요 죄, 죄가 있어서.
근데 죄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를 잊었다' '그를 잊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잊습니까?
자! 내가 내 사업문제 때문에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사업문제를 먼저 채택할 때, 사업과의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한 것이 있고 먼저 문제라고 느끼는 것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문제로 받

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면 어떤 세상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마음에 모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식문제 때문에 걱정하다가 자식을 껴안고 하나님께 나오게 될 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자식문제를 끌어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먼저입니다, 자식보다.
자식문제를 끌어안기 전에 자식이라는 과의 관계의 삶의 내용을 마음에 채우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일 들을 먼저 끌어안은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와요.
이건 하나님을 잊은 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마음에 채운 채로 만지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 그러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신명기 28장 16절에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또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먼저 먹고 살 일을 생각하면서 떡 반죽그릇을 만지지 않습니까? 내가 먹고 살려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떡 반죽그릇, 그 사업이 다~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죄 때문에, 죄로 만지니까.

혈루병 여자가 만지는 것마다 부정하게 되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부터 끊어지는 것처럼, 내가 내 속의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에 이미 침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떡 반죽그릇을 만지면 떡 반죽그릇이 망하고, 내 자식을 만지면 자식이 망하고, 사업을 만지면 사업이 망하고, 배우자를 만지면 배우자가 망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혈루병 여자가 그 누구에게도 접촉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삶의 내용이 없었던 것처럼, 내 죄를 보는 사람은 삶의 내용이 없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만지는 것마다 내 죄가 묻어나니까, 만지는 것마다 저주를 받게 되니까,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죽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죽어서 이 세상에 대한 삶의 내용이 다~ 빠져나갔을 때, 손들고 있어서 손에서 핏기가 빠져 나가듯이 다~ 빠져 나갔을 때, 아~무하고도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붙잡고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서 아~무하고도 관계하지 않고 있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이 첫 번째 관계대상이 되고,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이 첫 번째 내 관계와 접촉의 대상이 될 때에, 아무것도 이 세상에 대해 없는 삶의 내용이 제로(0)요 무(無)인 상태의 나의 삶의 현장에 하늘의 능력과 뜻과 기운이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한의사가 말한 손들고 핏기가 가시면 하늘의 기운이 통한다.
비유적으로 우리 삶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삶의 내용을 다~ 빼내면, 하늘의 기운이 통하게 됩니다.
애쓰기 전에, 노력하기 전에, 계획하기 전에, 소원하기 전에 삶의 내용을 다~ 빼내셔서 하늘의 능력과 기운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을 꼭~ 경험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손들고 핏기가 빠진 뒤에 우주를 운행하는 기운이 들어온다는 말처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함으로 우리 마음에서 삶의 내용이 다~ 빠져 나가고, 그 자리에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